

장원교육

‘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종합교육기업 장원교육은 11일~14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리는 ‘2019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 다양한 영유아 교육 상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장원교육의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기 위해 누리 과정이 반영됐다. 여기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동요, 놀이 등을 활용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학습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나는 동요와 첸트로 한글을 배우는 ‘착착 리듬한글’, 놀이 활동으로 유아부터 중국어를 익힐 수 있는 ‘장원 세이펜 중국어’, 체계적인 독서 활동 프로그램 ‘책읽는 아이들’, 수학의 기본 개념을 다지는 ‘아이별 맞춤수학’ 등 장원교육의 인기 영유아 교육 상품을 한 자리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천재교육, 참가 접수 실시

천재교육은 초1~중3 대상 ‘2019 상반기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참가 신청을 오는 5월 24일(인터넷 접수 마감은 5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6월 8일 개최되는 학력평가는 60분간 총 25문항을 푸는 시험으로 학년별 정해진 평가범위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에 대한 기본개념이나 원리 등 성취도를 평가한다.

시험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186만명이 응시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수학학력평가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 전국 해당 지역 접수처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HME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중앙대

‘다빈치 SW 드림 창업캠프’

중앙대는 지난달 29일~31일까지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9 다빈치 소프트웨어 Dream 창업캠프’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대 다빈치 SW교육원(원장 윤경현)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SW인재를 발굴해 SW기술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캠프는 SW 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 85명이 29개의 팀을 구성해 SW분야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이를 사업계획서로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윤경현 원장은 “학생들이 SW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등록금 동결, 대학교육 질적 성장 발목”

김현영 대교협 회장 취임

재정지원 받기 위한 평가수행 부담 정부 각종 대학평가 ‘일원화’ 제안 구태의연한 대학규제 완화 등 요구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김현영 신임 회장(강원대 총장)이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위기를 토로하고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각종 평가를 일원화할 것과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대학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금 대학이 처한 현실은 냉엄하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교협 회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이중 대학평가, 구태의연한 대학 규제 등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김현영 대교협 신임 회장

위,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평가수행의 부담감, 교육혁신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대학 규제, 고등교육의 미래 청사진 부재 등 갑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은 미래 혁신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불어넣고,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비율은 0.8%로 OECD 국가들이 GDP의 1.4%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다. 이렇다보니 등록금에 대한 국민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 34개국 중 29위, 교수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각종 통계자료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평가를 하나로 일원화해 대학들의 평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총장님들과 대화해보면 ‘교육부 평가 받다가 임기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대학들은 각종 재정지원사업 제안서나 보고서 작성, 평가 수행 등에 매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며 “정보공시나 감사결과 등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대학평가인증 시스템’을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이 처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령 및 제도적 장치 등 획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위한 범정부, 국회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대교협 기관인증평가체계를 통합하는 대학평가제도 일원화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규제를 보편적이며 글로벌한 법 상식에 걸맞도록 대폭 완화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대학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교육부와 대교협 간 ‘고등교육 혁신방안 TF’를 공동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밖에 국립대는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립대는 건학이념의 특색화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부터 강원대 기계융합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기획처장, 의료기기연구소장, 아이디어팩토리 사업단장 등 학내 보직을 두루 거친 뒤 2016년부터 강원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학교 밖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한국소성기공학회 부회장,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방안 TF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대한산업기술지원단 상임감사,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교협 회장 임기는 이달 8일부터 1년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0대 기업 중 13곳 ‘억대 연봉’
에쓰오일, 평균 1.37억원 ‘1위’

잡코리아 대기업 평균 8100만원
男 9000만원, 女보다 3200만원 ↑

국내 대기업 중 13개 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에쓰오일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2일 잡코리아가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2018년 12월 기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80개사(지주사 제외)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를 조사한 결과,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남성 급여가 평균 9000만원으로 여성 급여(5800만원)보다 3200만원 높았다.

직원 1인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대기업은 에쓰오일로 1억3700만원에 달했다. 이어 메리츠증권(1억3500만원), SK이노베이션(1억2800만원), 삼성증권(1억2100만원), NH투자증권(1억2100만원), 삼성전자(1억1900만원), SK텔레콤(1억1600만원), SK하이닉스(1억700만원), 삼성화재해상보험(1억600만원), 롯데케미칼(1억600만원), 미래에셋대우(1억600만원), 삼성물산(1억500만원), 삼성카드(1억100만원) 순으로 평균 급여가 1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13개사였다.

남성 직원 평균 급여가 높은 기업은 메리츠증권으로 1억5600만원에 달했다. 이어 NH투자증권(1억4300만원), SK이노베이션(1억42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여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9300만원이었다. 이어 삼성증권(9200만원), 에쓰오일(8900만원), NH투자증권(8900만원)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평균 급여 1억 이상 대기업〉

대기업명	평균급여
S-OIL	1억3700만원
메리츠증권	1억3500만원
SK이노베이션	1억2800만원
삼성증권	1억2100만원
NH투자증권	1억2100만원
삼성전자	1억1900만원
SK텔레콤	1억1600만원
SK하이닉스	1억700만원
삼성화재해상보험	1억600만원
롯데케미칼	1억600만원
미래에셋대우	1억600만원
삼성물산	1억500만원
삼성카드	1억100만원

시총 상위 100개사 중 80개 대기업 대상. /자료=잡코리아

한편 조사 대상 대기업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11.1년이었다. 남성 직원은 평균 11.8년 근속해 여직원(평균 8.6년)보다 3.2년 길었다.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기아자동차로 평균 20.8년 일했다. 이어 ▲KT(20년) ▲포스코(19.3년) ▲현대자동차(18.9년) ▲대우조선해양(18.1년) 순이었다. 남직원 근속년수는 기아자동차와 KT가 각 21년으로 가장 길었고, 여직원 근속년수는 한화생명(18.7년)과 KT&G(18.6년)가 가장 길었다.

대기업 직원 성별은 남직원이 75.7%, 여직원이 24.3%였다. 남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현대제철(96.9%), 기아자동차(96.5%), 쌍용양회(96.5%), 고려아연(96.3%), 삼성중공업(96.2%), 대우조선해양(96.2%) 순이었고, 여직원 비율이 높은 기업은 신세계(68.8%), 롯데쇼핑(68.2%), 아모레퍼시픽(67.7%), 오픈티(64.8%), 코웨이(6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용수 기자

韓-美,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협의

한미국방장관회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한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협의하고, 양국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 했다.

국방부는 현지시간으로 1일 정 장관과 새너한 대행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 주요현안을 논의했다고 2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줬다”면서 “이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한지, 한·미 관계관들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정 장관은 “성공적으로 마친 ‘동맹’ 연습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동맹’ 연습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작전 운용능력(IOC) 검증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새너한 대행도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패트릭 새너한 미 국방장관 대행이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면서 정 장관에게 “최근의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새너한 대행은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 장관과 지난) 3월 훈련에서 파악된 교훈 및 (앞으로 있을) 9월 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새너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4~12일 키리졸브연습을 대신해 처음으로 실시된 ‘19-1 동맹’ 연습 등이 성공적이었다는 정 장관의 발언과는 온도를 보였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세종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데이’ 개최

세종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데이’ 개최

세종대학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4일 대양 AI센터에서 ‘소프트웨어 데이’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으

로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표준활용도를 제고하고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인 컴퓨터공학, 정보보호학 등 6개 학부 및 학과 학생 약 200명 이상이 참여한다. /한용수 기자